

보도시점 2024. 5. 13.(월) 19:00 배포 2024. 5. 13.(월) 19:00

장르를 넘나드는 3개의 공연 통해 프랑스, 한국 문화로 물들인다.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파리, 퐁텐블로,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전통 월드 음악·클래식·퓨전 국악 공연 개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원장 이일열, 이하 문화원)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2024 코리아시즌’ 및 ‘한국문화제 <한국의 놀이> 스페셜’ 일환, 5월 16일(목)부터 5월 25일(토)까지 다양한 장르의 3개 공연을 총 6회에 걸쳐 프랑스 전역에서 개최한다.

‘2024 코리아시즌’ 계기 파리의 유서 깊은 ‘살가보’ 극장에서 한국 음악가들의 공연 시리즈 개최

먼저, 오는 18일 거문고와 피아노, 전자음악이 어우러진 ‘프로젝트 땡(Project tHinG)’의 공연이 살가보 극장에서 포문을 연다. ‘프로젝트 땡’은 국경과 장르를 넘어 다양한 배경의 예술가들이 형성하는 유대와 그로 인한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협업 프로젝트로 거문고 연주자 허윤정과 피아니스트 박종화, 영국의 전자 음악가 가브리엘 프로코피예프가 만나 협연할 예정이다. 음악에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은 없다는 ‘프로젝트 땡’의 의미처럼 본 공연에서는 현대음악 작곡가 아르보 패르트의 ‘형제들’을 거문고와 피아노의 이중주로 편곡해서 연주한 곡부터 거문고·피아노·전자음악의 3중주로 선보이는 세계 초연 작품 ‘바흐(Bach)’까지 폭넓은 음악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 땡은 동 공연을 앞두고 오는 16일 문화원에서 한국 내 월드뮤직의 발전사와 음악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땡과 작업의 특징을 소개하는 미니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차세대 프리 마돈나 소프라노 박혜상, 덴마크 왕립 오페라단의 베이스 고정일,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협연하는 유명 피아니스트 제프 코헨(Jeff

Cohen)과 파리 실내관현악단(Orchestre de Chambre de Paris)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프랑스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세계 굴지 클래식 음반사인 도이치그라모폰(DG)과 아시아 소프라노로는 최초로 전속 계약을 맺어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는 박혜상이 동 공연에 이름을 올리며 현지 클래식 음악계와 평단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공연 전문 매체 ‘라 테라스(La Terrasse)’는 “소프라노 박혜상이 세계 유수의 뮤지션들과 함께 한국 민요뿐만 아니라 프랑스 샹송, 모차르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레퍼토리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프랑스 전역을 들뜨게 할 사이키델릭 민요 <오방신(神)과>

또한, 문화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의 ‘<오방신(神)과>’ 공연을 총 3회에 걸쳐 ▲퐁텐블로(5월 19일(일), 퐁텐블로 시립극장), ▲파리(5월 22일(수), 문화원), ▲낭트(5월 25일(토), 낭트 레네프)에서 개최한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계기, 한국문화제의 주요 공연 프로그램인 ‘오방신과’는 “놀이”라는 주제로 전통 레퍼토리와 한국음악의 신명을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퍼포먼스를 통해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함께 춤추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 공연에서는 경기소리꾼 이희문이 오방신으로 변해 중생(관객)들과 함께 번뇌로 가득 찬 속세를 탈출하는 ‘사바세계 탈출기’를 그린다. 동 공연에는 이희문과 활동해온 밴드 ‘허송세월’과 경기소리꾼이자 서브 보컬인 ‘눔눔’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채로운 음악으로 다양성을 시도하며 작품마다 호평을 이어온 이희문의 프로젝트는 전통에 새로운 양식을 결합하고 분해하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한국 전통예술이 나아갈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 공연에서는 팝, 댄스, 록, 블루스, 발라드, 지르박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의 민요를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사이키델릭 민요 콘서트로 우리 민요의 다채로운 매력을 프랑스 전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일열 문화원장은 “문화원은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음악가들의 다채로운 공연은 올림픽의 공식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컬처

올림피아드(Olympiade Culturelle)’의 라벨을 인증받아 파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객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K 클래식, 전통 및 퓨전 국악이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붙임 1. 공연 홍보 이미지

담당 부서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이일열 (+33) 01 47 20 84 15
		담당자	언론홍보 이성은 (+33) 01 47 20 86 48





2024 한국문화제 일환, 이희문 프로젝트의 <오방신(神)과> 공연 이미지

PARIS, FRANCE 2024

FESTIVAL DE LA MUSIQUE DU PRINTEMPS

CORÉE À PARIS

SAMEDI 18 MAI 19H

PROJECT tHing

Un chemin ancien menant vers le futur

SALLE GAVEAU

2024 Saison Coupée

JONGHWA PARK
PIANO

YOON JEONG HEO
GEOMUNDO, COMPOSITEUR

GABRIEL PROKOFIEV
MUSIQUE ÉLECTRONIQUE, COMPOSITEU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FICE

Korea Cultural Center

KOREA SEASON

MAGG

NPLUG

SAVEAU

2024 코리아시즌 일환
프로젝트 땡(Project tHing) 공연 이미지

PARIS, FRANCE 2024

FESTIVAL DE LA MUSIQUE DU PRINTEMPS

CORÉE À PARIS

DIMANCHE 19 MAI 17H

Grand Gala Classique

Jeux Lyriques

SALLE GAVEAU

2024 Saison Coupée

KYUNGIL KO
BASS

HERA HYESANG PARK
SOPEANO

JEFF COHEN
PIANO

QUINTETTE À VENT DES SOLISTES DE L'ORCHESTRE DE CHAMBRE DE PARI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FICE

Korea Cultural Center

KOREA SEASON

MAGG

NPLUG

SAVEAU

2024 코리아시즌 일환 그랜드 갈라 클래식
<Jeux Lyriques> 공연 이미지